

2005년에 실시한 제4회 김영인 문예공모전에서 수필 부문 가작으로 선정된 수상작과 사 부문 공모의 중 좋은 점을 받은 시 한 편을 실었다. 2005년 문예공모전은 www.positive.or.kr에서 볼 수 있다.

희망을 바리보고사는 삶2

김정환 (수필가 김영인 가작)

난 그와 16년 가까이를 같이 왔지만 그의 모든 시간들이 그가 김영인
이 될 줄 생각해서 보내 왔는데 유린의 자질을 안고서든 저를에게 불평
하는 거면 그 때로 사귀지 마라 이대영은 행복하는 제1회 제1회 가작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의 가작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가작은 그의 가작이 될 것이다.

김정환 김영인를 전경의 전부인 것 같
이런 것은 그의 사랑과 슬픔이 모두 같은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김정환은 바리보고사는 삶을 많이

색한 번 안한다. 나도 묻지 않는다. 어떤 일을 오늘은 했을까? 나 혼자서 추측은 하지만 우린 서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감염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삶의 의욕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바빠서 내가 감염인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난 그와 함께 일하는 같은 감염인들 친구들을 지우는 아니더라고 가끔 집에서 보게 된다. 집에서 보게 되는 그들은 다 밝아 보인다. 서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 감염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번이라도 떠돌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사심 없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난 그들이 항상 웃고 즐기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내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서 남들처럼 좌절하지 않고 협회라는 곳에 나와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들이 난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난 잘 알지 못한다. 협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가 집에 와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그에게 묻질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소외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서로 돕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아름다운 세상에 스스로 찾아내는 가장 좋은 친구들의 무리가 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그로부터 가끔 듣는 말이지만 정부에서 소외 계층을 위해서 복지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물론 감염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세상에 소외계층은 많다. 하지만 가장 희망이란 걸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희망을 송두리째 뺏아 버리는 질병이 바로 이병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로 부터의 소외 그리고 두려움, 말 못하는 괴로움. 하지만 이들은 조금의 도움으로도 세상을 바로 보고 더 많은 행복을 가지고 더 오래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

을 해 본다. 마음의 병은 마음을 치유하면 되지만 감염인들은 특별한 완치제가 나오지 않는 한 항상 불안과 언제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들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난 정부에 호소하고 싶다. 조그만 관심에도 감염인들은 고마워한다. 그건 내 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의 자그마한 손길에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외면에 그냥 버려져 버리는 안타까운 감염인들도 많다고 들었다. 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처음 알게 된 감염인들을 정서적으로 달래주는 보호에서부터 사회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는 그들까지 다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지지 못할 것이면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사회속의 일원이 되도록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물론 나와 같이 사는 사람처럼 정신력이 투철한 감염인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걸 나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처음부터 가정과 사회에 재적응에 필요한 힘이 되어줘야 그들도 희망이란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난 한국에 얼마나 많은 감염인이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감염인들이 감염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냥 흘려버리는 그 가까운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해줘야 하는 게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다. 난 그가 협



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감염인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사업에 대해서 가끔 흘려들었다. 감염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의 예산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모르지만 감염인들을 위한 사회적 재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이 감염 사실을 알고 나서 사회적 재적용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질병은 사회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질병이 아니다. 나와 같이 수년을 살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일에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감염인들과 관련된 협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또 다른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들의 삶을 버려두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 삶을 영유하는 데 힘이 돼 주어야 한다 생각한다.

세상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역이나 주변 공원에 많은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난 여러 생각을 해본 감염인과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 온 사람이고 나도 언젠가 감염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시각으로 감염인들을 바라본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 보았다. 희망을 등지면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난 모든 감염인들이 절망의 삶에서 나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항상 나를 생각해 주는 옆 사람과 그를 도와주는 그의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할 뿐이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 모든 감염인들이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회에 빨리 재적용해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염인의 가족 중 한사람으로서 감염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질병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리고 자기만 걸리는 병도 아닌 그

어느 누구라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숨어버린단든지 아니면 삶을 택한다든지 하는 자포자기 한다든지 극단적인 자살이라든지 이런 무모한 생각을 접고 그래도 삶엔 희망이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감염인의 가족들은 항상 감염인을 감염인이란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일반인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주라는 말을 당부하고 싶다.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감염인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항상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옆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도 하면서 모든 감염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해주면서 '세상은 생각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 라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도우면서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